

사명의 한계

성경본문 <신명기 3장 23절 ~ 29절>

[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 그 때에 우리가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기록과는 달리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1) 모세가 말 한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순종적이라면, 자신이 므리바에서의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죄 때문에, 모세에게 분노를 표현하셨으며,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이라면, 모세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위한 마음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1.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소원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듣지도 않으셨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이 **1) 모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평생을 이끌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대신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살아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 17:3-4)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의 고백 후,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이셨습니다. 그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이 곳을 변화 산이라고 부르고, 현재의 다불 산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다불 산이 요단 강 서편 모세가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바라본 것은 다만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다음 사람을 통하여 이어질 사명이 있습니다.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2)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은 여기서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인도해 온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한계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고, 동일하게 원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음 사람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땅에서의 사역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흩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던 계획을 다음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우리가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소서.